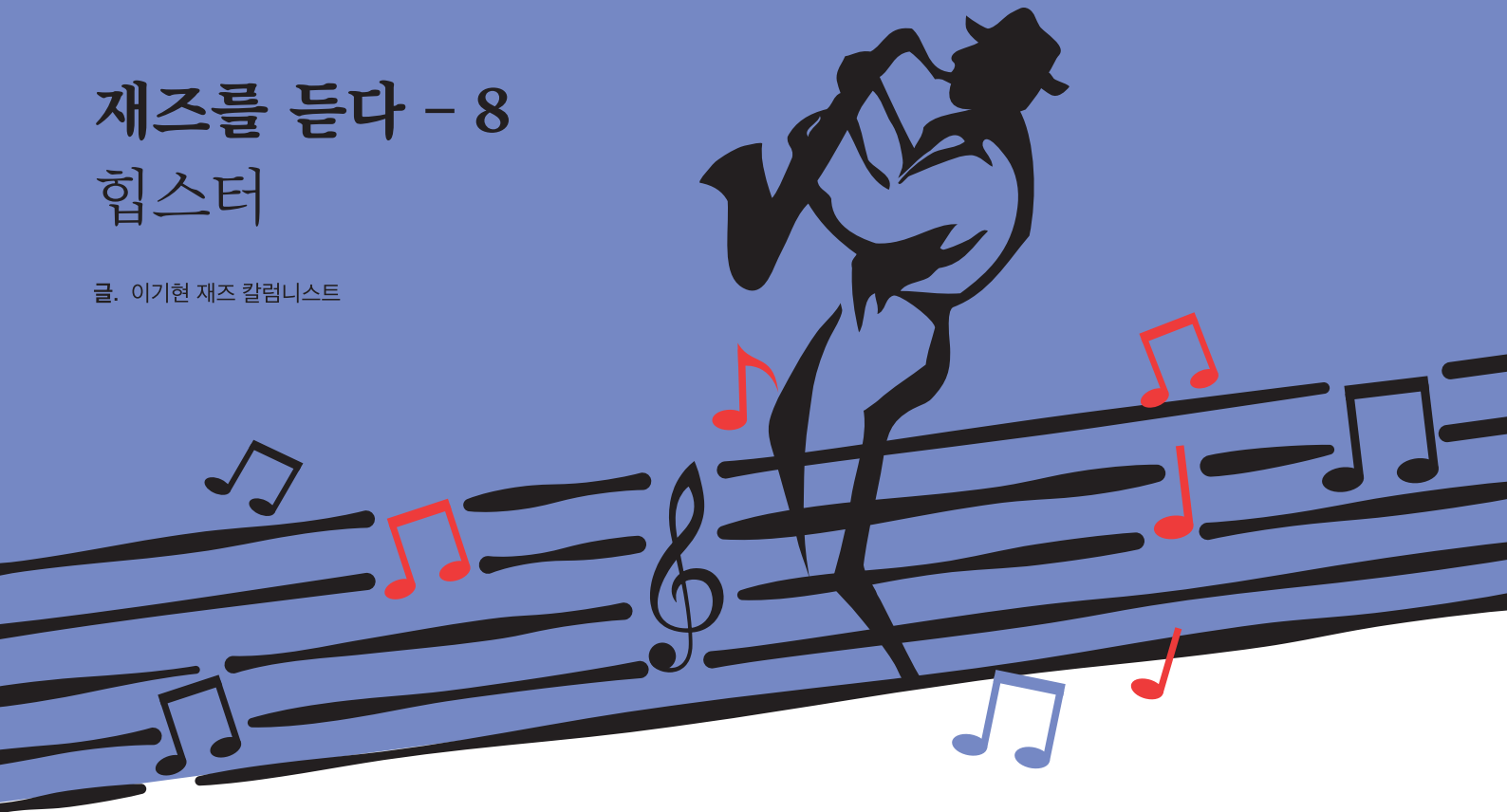


재즈를 듣다 - 8

힙스터

글. 이기현 재즈 칼럼니스트



살롱(Salon)은 17세기 이후 주로 유럽 상류층이 끼리끼리 모여 문학, 음악, 미술 등 여러 예술 작품을 보고 듣는 것으로 소일하였던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19세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확대, 발전돼 역사적으로 유명한 미술가, 음악가들이 살롱에 모여 비슷한 방식으로 놀았다고 한다. 귀족 중심에서 예술가 중심으로 구성원이 바뀔에 따라 때때로 진부하고 유치했던 살롱 음악은 상당히 들어줄 만하게 수준이 높아진 듯하다. 몇 가지 이유로 살롱 음악은 낭만파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쇼팽은 살롱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린 피아니스트였다고 한다. 슈베르트 경우 친구들이 그의 음악을 듣고 즐겼던 ‘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라는 모임이 있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에 유입된 ‘살롱’이란 말은 이른바 방(=Room)과 결합해 ‘룸싸롱’이라고 하는 퇴폐 업소 중 하나로 변질됐다. 비슷한 사례로 ‘카바레(Cabaret)’가 있다. 다소 폐쇄성을 띤 살롱과 달리 카바레는 당대 지식인, 예술가가 만나고 교류하는 공론의 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선 뽕짝 음악이 흘러나오는 댄스홀이자 제비, 꽃땀이 판치는 유흥업소로 전락해버렸다. 일본에선 ‘카바레 + 쿠라브(=Club)’를 결합해 ‘카바쿠라’라는 업소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런 왜곡된 시각으로 카바레를 바라보면 로

트렉의 주 활동지였던 ‘몰랑루즈’나, 다다이즘(Dadaism)의 발상지로 알려진 취리히 카바레였던 ‘볼테르’를 크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취리히에는 망명자가 많았다고 한다. 주로 징집을 피해 도망 온 지식인, 예술인들이다.

1914년에 벌어진 1차 세계 대전의 원인에 관해선 여러 이야기가 있을 텐데, 15세기 아메리카 대륙 발견과 18세기 산업혁명이란 무기를 손에 쥔 유럽이 극악무도한 노예무역과 식민지 착취로 쌓은 거대한 부를 놓고 벌인 패싸움이었다고 본다. 소위 ‘나와바리’ 경쟁을 하는 동네 조폭이 땅따먹기에 혈안이 돼 동서남북으로 갈려 싸우는 규모가 국제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제국주의 국가 간 탐욕으로 인한 전쟁의 참상을 보며 망명자들이 느꼈던 절망감, 허무주의가 1915년에 반항적 다다이즘으로 발현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파생한 부조리, 반도덕, 반체제, 비심미성이 20세기 예술에 끼친 직간접적 영향은 실로 크다. 재즈에서는 힙스터(Hipster)를 그 연장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을 듯하다. 다다이즘이 1차 세계 대전과 관계가 깊듯, 힙스터는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1940년대 재즈광을 가리키는 은어였다. 일반적인 평으로는 교육을 받았으나 전통적 도덕 관념을 경멸하고, 퇴폐주의, 무정부주의 성향이 강한 지식인으로

묘사한다. 옷차림 또한 수염을 기르거나, 빨테 안경, 베레모, 핀스트라이프 정장 등을 즐겨 입었다. 힙스터의 힙(Hip)은 엉덩이가 아니고 아편을 가리키는 속어인 홉(Hop)에서 파생한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겐 힙스터보다는 히피(hippie)란 용어가 훨씬 더 친숙하다. 히피는 지식인과는 거리가 멀고 대마초나 피워대는 무식한 양아치를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후에 힙스터를 대체했다. 랩 음악과 그래피티 미술을 함께 지칭하는 장르인 힙합(Hip-hop)이란 용어도 힙스터에서 온 것일 테지만, 이 경우는 엉덩이(=Hip)를 들썩인다(=Hop)는 사전적 의미와도 통한다. 오늘날엔 겉멋으로 힙스터인 척 행세하는 얼치기들로 인해 상당히 의미가 변질한 듯하다.

1920년대 초기 뉴올리언스 재즈를 거쳐 1930년대에 유행한 빅밴드 재즈 시기까지의 재즈 뮤지션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로 쇼비지니스계의 엔터테이너로 규정한 듯하다. 1940년대에 들어서며 이 같은 풍조에 변화가 생겼다. 대중을 향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트럼펫을 부는 루이 암스트롱과 같은 광대 이미지에 반감을 갖게 된 것이다. 재즈 외에 드뷔시, 라벨, 스트라빈스키, 버르토크를 듣기 시작했다. 자연히 새로운 화성법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직장인 빅밴드 댄스홀에선 새로운 시도를 아예 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연주밖에 할 수 없었다. 돌파구는 일과가 끝난 후 나타났다. 아는 사람끼리 클럽에 모여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은 채 밤새 마음껏 연주하는 비공식 연주를 ‘애프터 아워즈(After Hours)’라고 했다. 원래 이것은 캔자스시티의 관습이었고, 콜맨 호킨스, 레스터 영, 로이 엘드리지 등이 최고 연주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이것이 뉴욕의 재즈 클럽으로까지 이어진 듯하다. 뉴욕 52번가에 있었던 민튼즈 플레이하우스(Minton's Playhouse)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애프터 아워즈 장소였다. 찰리 파커(Charlie Parker), 디지 길레스피(Dizzy Gillespie), 쉘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onk), 버드 파웰(Bud Powell) 등이 주도한 새로운 재즈를 밥(Bop) 또는 비밥(Be-Bop)이라고 한다. 다다이즘의 ‘다다(Dada)’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의성어라고 하듯, 밥(Bop) 역시 뜻이 없는 말이다.

찰리 파커는 캔자스시티 태생의 알토 색소폰 연주자이자 1940년대를 대표하는 힙스터였다. 버드(Bird) 또는 야드버드(Yarbird)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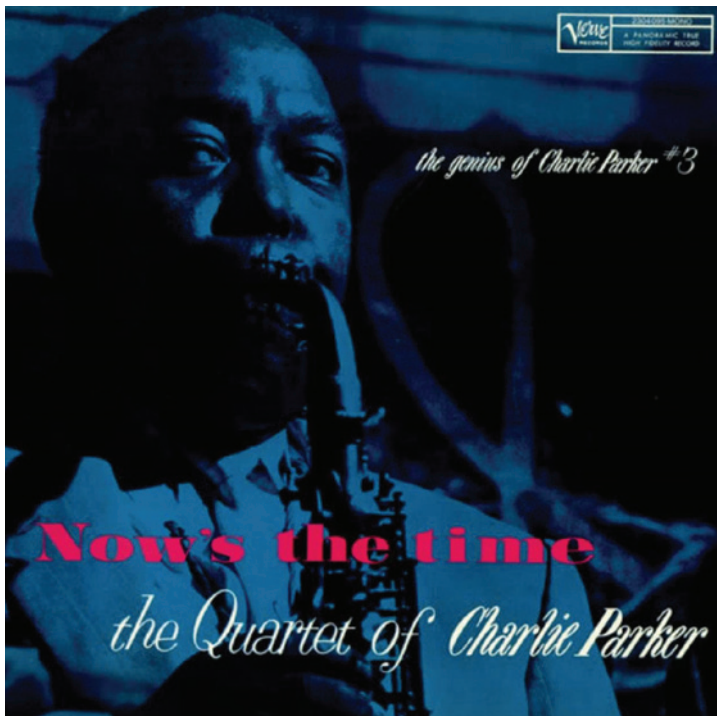
민튼즈 플레이하우스 / 출처 : nytimes.com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1988년에 그의 전기 영화인 ‘버드’를 개봉했다. 에릭 클랩튼, 제프 벡, 지미 페이지가 거쳐 간 밴드인 ‘야드버즈’ 역시 파커로부터 온 것이다. (야드버즈는 ‘뉴 야드버즈’라는 과도기를 거친 후 ‘레드 제플린’으로 이어진다.) 밥(Bop) 시대 개막을 알린 최초의 천재이자, 삶 전체가 온갖 기행과 광기, 술과 마약으로 인한 자기 파멸로 점철된, 말 그대로 ‘미친 놈’ 자체였다. 그러나 찰리 파커 연주를 들어보지 못한 채 책을 읽고 상상만 하다 처음 그의 음악을 접했을 때 생각보다 별로라 조금 당황했다. 진짜 천재 중의 천재라면 시대를 뛰어넘고 음질의 열악함도 뛰어넘어 지금 들어도 여전히 끝내주는 뭔가가 있어야지 않은가?

내가 그의 가치를 절감한 것은 우연히 구입한 정체불명의 씨디 한 장 때문이었다. 지인을 만나려고 시내에 나갔다가 시간이 남아 근처 백화점에 들어가 꼭대기 층에 있는 음반점을 서성였다. 당시 청계천 도깨비시장에나 있을 법하게 생긴 조잡한 씨디가 눈에 띄었다. 일본말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나온 해적판인 듯했다. 표지도 재즈와는 무관한 자동차 사진에다 속지는 아예 없다. 곡목 또한 일본말로 돼 있었는지 복사기로 대충 복사한 영문 제목을 덧대어 붙여 놓았다. 그나마도 맬 왈드론(Mal Waldron)을 맬



찰리 파커 / 출처 : ja.wikipedia.org



찰리 파커의 앨범 '때가 됐다' / 출처 : amazon.co.jp

볼든(Mal Boldon)이라 하고 버드 파웰(Bud Powell)은 배드 파웰(Bad Powell)로 써 놓는 등 황당한 오자투성이다. 조잡한 대신 싼 가격이었기에 샀다. 길은 볼품없었지만 집에 와 들어 보니 내용물은 기대 이상이였다. 선곡을 누가 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틀림없이 재즈를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았다. 여기에 버브 레이블에서 나온 '찰리 파커의 천재, 3번(=The Genius of Charlie Parker, Vol. 3)' 음반에 수록된 '때가 됐다(=Now's the Time)' 연주가 들어 있었다. 이 곡을 이렇게 들어본 것이 내게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뒤늦게 찰리 파커의 진가를 알게 된 계

기가 되었다. 한마디로 그냥 뻑~ 갔다. 그냥 '아~ 좋다~'라는 표현으로 부족해 (최상급 감탄사의 의미에서) 나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다. 그만큼 이 연주에서 받았던 인상이 강렬했다. 그 후 파커의 다른 음반들을 다시 들어보니 비로소 이 사람의 연주를 듣고 즐길 수 있는 귀가 열렸음을 알았다. 그렇긴 해도 여전히 내게 최고의 연주는 첫 만남에서 강한 인상을 남겨 주었던 이 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5세로 단명한 파커와 달리 동료 연주자인 디지 길레스피(Dizzy Gillespie)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 별명인 '디지'



디지 길레스피 / 출처 : ameblo.jp



디지 길레스피의 앨범 '그루빙 하이' / 출처 : amazon.co.jp



셀로니어스 몽크 / 출처 : loc.gov

는 그가 천성적으로 쾌활한 장난꾸러기였음을 말해준다. 부인을 잘 만난 덕분에 마약에 손대지 않고, 76세까지 비교적 장수했다. 나팔 각도가 특이하게 생긴 트럼펫과 연주할 때마다 볼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특이한 주법을 사용한다. 미국 인기 시트콤이었던 ‘코스비 가족’에 출연해 부풀어 오르는 볼 묘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재즈 연주자들이 음반 하나하나를 ‘작품’으로 간주하는 데 반해, 이분은 정신 산만한(=Dizzy) 성격 탓인지 그런 개념도 별로 없어 수작과 졸작이 공존한단 글을 어디선가 읽었다. 이 와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나는 1955년 사보이(Savoy) 레이블에서 발매한 ‘그루빙 하이(Groovin’ High)’를 꼽겠다.

피아니스트 셀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onk)는 평소에도 수도승(=Monk)처럼 말수가 적었다고 한다. 연주법 또한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독자적이며 대단히 독특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합주보다는 솔로 연주에서 더 빛이 나는 스타일이다. 1959년 발매한 ‘셀로니어스 홀로 샌프란시스코에(=Thelonious Alone in San Francisco)’라는 솔로 음반을 추천한다. 국내 재즈 팬들에겐 1957년에 발매한 ‘몽크의 음악(=Monk's Music)’도 친숙하다. 재즈 음반 구하기 어려웠던 1990년대 초에 드물게 라이선스 LP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셀로니어스 몽크의 앨범 ‘셀로니어스 홀로 샌프란시스코에’ / 출처 : youtube.com

빅밴드에서 밥으로 넘어가며 재즈는 예술성을 획득한 대신 폭넓은 대중성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재즈에 맞춰 춤을 출 수 없었다. 사보이 볼륨의 간판 스윙 댄서였던 프랭키 매닝은 춤을 깨끗이 접고, 수십 년 간 무명의 우체부로 살았다. 댄스 음악으로서의 재즈가 떠나간 그 자리는 새로운 대중음악인 락앤롤이 차지했다. 🎧



찰리 파커의 앨범
‘때가 됐다’



디지 길레스피의 앨범
‘그루빙 하이’



셀로니어스 몽크의 앨범
‘셀로니어스 홀로 샌프란
시스코에’

QR 코드를 통한 주요 연주 링크